

전 남

젓은 비에 시설하우스 생육 저조

전남지역 일조량 평년보다 100시간 부족

병해충 많고 수정률 떨어져 수확량 감소

지난달 초부터 잦은 비가 내림에 따라 일조량 부족과 토양수분 과다로 전남지역 시설하우스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2일간 183.3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9.5mm, 평년(1971~2000년 30년 평균) 168.8mm에 비해 많은 양이다. 작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일조량 역시 지난해 211.6시간, 평년 259.9시간보다 적은 160.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딸기, 시설수박, 애호박, 토마토, 풋고추, 오이, 화훼류 등 시

들어버려 채되지 않은 고추들이 빠져버리고 있다.

오이, 딸기, 토마토 등 겨울철에 주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일조량 부족으로 동화양분이 축적되지 못하면 수정률 저하에 의한 착과 불량과 기형과 발생이 높아지게 된다. 또 시설내 단순한 환경에 의해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가 발생하게 된다.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역시 일조 부족과 습해로 뿌리 활력이 떨어져 생육이 저조하고 일시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며 잎갈마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이장동 3천967㎡(1천200평)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최명락(44)씨는 "현재 토마토는 열매를 맺는 착과단계이지만 인공수정이 잘 안 되는 데다 기형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5월초에 본격적으로 수확하게 되면 예년보다 수확량이 3분

의 1정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이 시기 시설하우스에 대해 병해충 방제와 수정을 촉진하는 한편 시설하우스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명환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작물 담당은 "지난 2월 이후 잦은 비로 일조량 부족과 습해로 시설과채류의 생육이 부진하고 병해 발생이 많다"며 "시설하우스 보온덮개를 오전 일찍 걷어주어 탄소 동화작용을 촉진시키고 온풍난방기를 가동해 작물별 적정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딸기 2천928농가 807ha, 토마토 1천983농가 767ha 등 1만2천766농가가 4천674ha에서 시설과채류를 재배하고 있다.

황소개구리 크게 줄었다

무안·나주 등 최대 66% 감소

대표적 생태계 교란종인 황소개구리가 지난해 극심한 가뭄 영향으로 전남지역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09년 생태계 교란 동·식물 모니터링' 결과 무안과 나주지역에서 서식하는 황소개구리 개체수가 지난해 2008년에 비해 66%, 10% 각각 감소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나주, 무안을 비롯해 전국 40개소를 대상으로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도깨비거북 등 10종의 생태계교란종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무안 조사지역은 지난해 2007년 황소개구리가 68건 포획됐으나 2008년 201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12건으로 줄어들었다.

다. 신안 하의도는 지난해 2007년 황소개구리가 211건 목격됐으나 2008년 14건, 2009년 7건으로 줄어 들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김종민 연구관은 "황소개구리 개체수 감소는 지난해 유난히 가뭄이던 데다가 가뭄 등 육식성 어류가 황소개구리를 잡아먹은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조사지역을 전국 160개소로 확대하고 가시박, 미국썩부름기 등 6종의 생태계교란종을 추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

남양면, 땅주인 승낙없이 농로포장

농장주와 다툼 경찰수사·폭력배 동원없어

〈속보〉고흥군 남양면 '특정인을 위한 농로포장' 기사(본보 15일자 10면)와 관련 남양면은 월정리 주안농로 포장공사(총 연장 150m, 노폭 3m)를 시행하면서 인근 토지소유주로부터 편입부지에 대한 기공승낙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이 없이 시공 및 준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면 관계자는 "당시 농장주 A씨가 구두로 농로포장을 요구해 사업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고흥경찰은 토지소유자와 농장주를 지난 16일 대질조사한 결과 토지소유자를 폭행한 A씨측은 '폭력배'가 아닌 '가족'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진도~제주 해저케이블 6월 동해항서 첫 선적

최초의 해저 케이블 공장인 LS전선 동해공장이 지난해 2월 한전으로부터 수주한 3천300억원 규모의 제주~진도 간 직류연계사업의 해저 케이블을 오는 6월 동해항을 통해 첫 선적할 예정이다.

17일 동해시와 LS전선 동해공장에 따르면 송정산업단지 입주한 해저케이블 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제주~진도 간 105km 구간에서 설치할 250kV급 해저 케이블의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 그린비즈니스 및 해양용 솔루션 사업의 진전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적되는 해저 케이블은 케이블 이송로인 갱웨이(Gangway)를 거쳐 동해항에 정박한 1만t급 선박에 선적하게 된다.

/사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ark@

'해남 본관' 성씨 수백개 생긴다

관내 이주여성 대상 개명 서비스

해남군은 관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남 일대를 본관으로 하는 성과 이름을 갖는 개명(改名) 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실시한다.

현재 해남에는 국적을 취득한 131명을 포함해 403명의 이주여성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이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공서나 금융권 방문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여성들이 국적 취득한 한국식 이름으로 성과 본관을 창설하고 개명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수만엔에 달하기 때문이다.

군은 이에 따라 여성회관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글 교육

등 각종 다문화 정착교육을 받는 이주여성들 개명 희망자를 모집, 법률구조공단 해남출장소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을 낼 계획이다.

특히 본관(本貫)의 경우 해남운씨 등 기존 성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남 본'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주 여성이 해남군 또는 해남내 읍, 면, 리를 본관으로 삼고 개명하면 해남 일대를 본관으로 하는 성(姓)이 수백 개가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사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고흥 축협 조합장 신강식 후보 당선

지난 16일 치러진 고흥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강식(67)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

고흥군 선거관 리유원희에 따르면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신 조합장은 총 유효투표수 2천247표 가운데 65.4%인 1천469표를 차지해 3선에 성공했다.

신 조합장은 "사립에는 조합, 봉사하는 조합, 힘있는 조합을 만들어 고흥 축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길중기자 gju@



지리산 고로쇠 드세요

가격은 1.8ㄹ 한통에 5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남부사무소는 지난 16일 탐방안내소에서 지역특산물인 고로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수액시음 및 판매행사를 가졌다. 고로쇠 판매가격은 1.8ㄹ 한통에 5만원.

/위적리기자 jrwi@

영광원전 성능개선 공사 두산중수주

가동된 지 24년이 된 영광원전 1, 2호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실시된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저압터빈 성능개선 공사를 컨소시엄을 구성한 두산중공업과 독일 지멘스가 수주했

다"고 1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이날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2천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지멘스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영광원전 1, 2호기는 지난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4년간 운전한 발

전소로, 설계 수명(30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번 성능개선 공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저압터빈 수명은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되며, 발전출력도 호기당 20MW 이상 증대된다.

영광원전 관계자는 "성능개선공사를 거쳐 2호기는 2013년 4월, 1호기는 2013년 10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효상공인중개사
T.062-376-4056
H.010-3128-1515

*** 임야(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빌딩(임대용,투자용)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사무실적합) -매가 19억 -보증금 1억6천만 원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재산리모델링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급매물 즉시 중개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광주동행 신촌점, 마포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십시오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합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양광발전소부지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 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확인 된 곳.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 위 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가능

(주) 땅심
TEL : 010-3616-8698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장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연번	지역	소재지	면적/건평	건평/가	최저가	비고
1	전남	신안군	해례당리	109/33	1억3천	9천1백
		순창군	문성리	112/24	1억3천3백	9천3백
		남원시	황포리	211/64	4천5백	3천1백
2	전남	고흥군	영광리	114/34	1억5백	1억1천
		곡성군	곡성리	129/39	1억2천3백	8천5백
		곡성군	곡성리	158/44	2억2천	1억5천3백
3	전남	곡성군	곡성리	166/50	1억9천	1억5천3백
		영광군	영광리	158/48	2억4천	1억9천5백
		곡성군	곡성리	189/57	3억2천	2억3천4백
4	전남	곡성군	곡성리	224/68	1억9천	1억3천3백
		곡성군	곡성리	122/37	1억4천	8천9백
		곡성군	곡성리	109/33	1억2천1백	8천4백
5	전남	곡성군	곡성리	215/65	3억5천	2억4천5백
		곡성군	곡성리	112/24	1억3천	9천1백
		곡성군	곡성리	189/57	3억5천	2억4천5백
6	전남	곡성군	곡성리	109/33	1억4천	9천9백
		곡성군	곡성리	189/60	2억2천	1억5천3백
		곡성군	곡성리	189/60	2억2천	1억5천3백